

논문접수일 : 2012.12.12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5

문화원형을 활용한 패션상품개발을 위한 조형성 분석

-민화 효제문자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formativeness for creating fashion items
based on the cultural original form

- Focusing on *Hyojae Munjado*-

주저자 : 장현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Jang hyun-joo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효제문자도의 개념
- 2.2 효제문자도의 문양 및 상징성

3. 효제문자도 문화원형의 조형성

- 3.1 색상
- 3.2 문양
- 3.3 구성
- 3.4 서체
- 3.5 표현기법
- 3.6 지역성
- 3.7 미적특성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효제문자도 문화원형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고자 선행연구로 효제문자도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와 박물관의 유물을 직접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조형성을 분석했다. 효제문자도는 유교적 윤리관을 압축시킨 여덟 글자 즉 효, 제, 충, 신, 예, 의, 엄, 치를 한 글자씩 나누어 각 쪽에 관련설화에 나오는 상징물과 함께 8쪽의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이것은 예스러운 서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각 문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을 그대로 문양화시킨 점, 특히 제주의 문자도에서는 제주의 자연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문자를 강조하기 위해 문자내부 또는 외부에 문양을 세련되게 배치한 점, 제주도 문자도의 3,4단 구성법, 담채기법, 선묘 및 점묘법, 도식적 표현기법 등에서 세련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문자도의 문자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점, 산수와 동식물을 상세하게 표현한 점 등에서 사실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음양이론에 근거를 둔 상생관계 배색을 많이 사용한 점, 제주 및 관서지방에서는 무속신앙을 표현한 점 등에서 추상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미적특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문자도에서 자연미와 세련미, 사실미와 추상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전통문화원형을 활용한 패션상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상품과 차별화와 더불어 고급화, 글로벌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효제문자도, 조형성, 문화원형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reate various fashion items with the result of analysis on formativeness of *Hyojae Munjado*. For this study, *Hyojae Munjado* was chosen as the cultural original and advanced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its formativeness through the documentary survey and study of artifacts. This study found out that *Hyojae Munjado* has natural beauty. It is antique chirography and has each character's symbol as patterns. *Hyojae Munjado* also has refined beauty. Patterns are placed inside and outside of a letter nicely to emphasize the letter. It uses light coloring technique and Jeju's *Munjado* has three or four sections. Not only that, it has realistic beauty. It shows the characters directly, presents landscape, and portays animals as well as plants realistically. Moreover it has abstract beauty. Based on yin and yang theory, it arranges colors of win-win relations harmoniously. In Jeju and the Nor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Hyojae Munjado* includes shamanism. The best feature of *Hyojae Munjado* is that its elements are in harmony with natural beauty, refined beauty, realistic beauty and abstract beauty.

Keyword

Hyojae Munjado, formativeness, cultural original form

1. 서론

민화는 우리 민족의 삶, 신앙, 멋 그리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담긴 우리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유산이다. 주로 무명인에 의하여 산수, 화조 등의 정통회화를 모방하여 민간전설, 민속, 서민생활 등을 소재로 소박하고 과격적이며 익살스러운 표현기법으로 제작되어 생활공간을 장식하거나 일상생활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화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그려졌던 것으로 그 주제에 따라 화조도, 산수도, 고사인물도, 문자도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중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련있는 故事와 說話 등의 내용을 상징하는 문양을 자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으로 글자와 그림을 결합시킨 형태로 한문자와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즉 한자를 소재로 회화화, 도안화한 민화그림에서 보이는 글자에는 각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이야기, 의인화된 사물 등을 함께 그려 넣었다(윤열수, 2010).

문자도는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벽사의 상징성을 지닌 용, 호 등을 표현한 벽사문자도, 길상의 의미를 지닌 수, 복, 강, 령, 정, 부, 귀 등과 같은 문자를 다룬 길상문자도, 孝, 悌, 忠, 信, 禮, 義, 廉, 恥의 여덟 글자를 유교가 내세우는 여덟 덕목과 대비시켜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개한 효제문자도가 그것이다(이명구, 2005).

본 연구자는 한국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인 민화 중 유교의 덕목을 강조한 효제문자도 문화원형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본 논문에서는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패션상품 개발의 응용자료로 활용하고자 효제문자도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직접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색상, 문양, 구성, 서체, 표현기법, 지역성, 미적특성과 같은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서민문화자원인 민화 문화원형의 체계적인 조형성 분석 연구를 통해 다양한 패션상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상품과 차별화 및 고급화, 글로벌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효제문자도의 개념

효제문자도는 유교의 도덕 강령이며 선비들의 덕목 지침이기도 한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즉 부모

님에 대한 효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우애, 나라에 대한 충성, 서로에 대한 믿음,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이는 것 등 유교적 윤리관을 압축시킨 여덟 글자를 한 글자씩 나누어 각 폭에 관련설화에 나오는 상징물과 함께 8폭의 병풍으로 파노라마식으로 꾸민 것이다. 즉 각각의 문자그림에는 이들 덕목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관련된 일화, 고사, 혹은 일화와 관련하여 상징성이 부여된 기물이나 동식물이 글자 획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문자 내부 혹은 외부에 함께 그려졌다.

처음에는 이러한 효제문자도가 조선시대 유교의 덕목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교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으나 18세기를 전후로 도교적 상징물과 함께 그려져서 기복적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 다른 민화의 화제와 결합되어 책거리문자도, 산수문자도 등으로 발전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다.

2.2. 효제문자도의 문양과 상징성

효제문자도는 효제충신에의엄치 여덟 글자를 각각의 상징물들과 함께 제작한 그림으로 효제문자도의 글자 한자 한자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각 문자의 상징물과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3. 효제문자도 문화원형의 조형성

민화 효제문자도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색상, 문양, 배치구도, 구성, 표현기법, 서체, 지역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박물관 도록 및 서적을 통한 문헌적 고찰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직접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효제문자도 110여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명구, 2005, pp.45-247;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p.112-146; 윤열수, 2000, pp.336-411; 부산박물관편, 2007, pp.96-114).

3.1. 색상

조선시대 서민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민화는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으로 먹의 짙고 옅은 정도에 따라 표현하는 수묵화의 형태도 있지만 적, 청, 황색을 기본으로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진하게 채색한 화려한 그림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민화 효제문자도에 표현된 색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묵화 느낌으로 유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흑색만을 사용하여 음영효과를 통해 표현한 유형 I, 문자에는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을 사용하고 적색이나 청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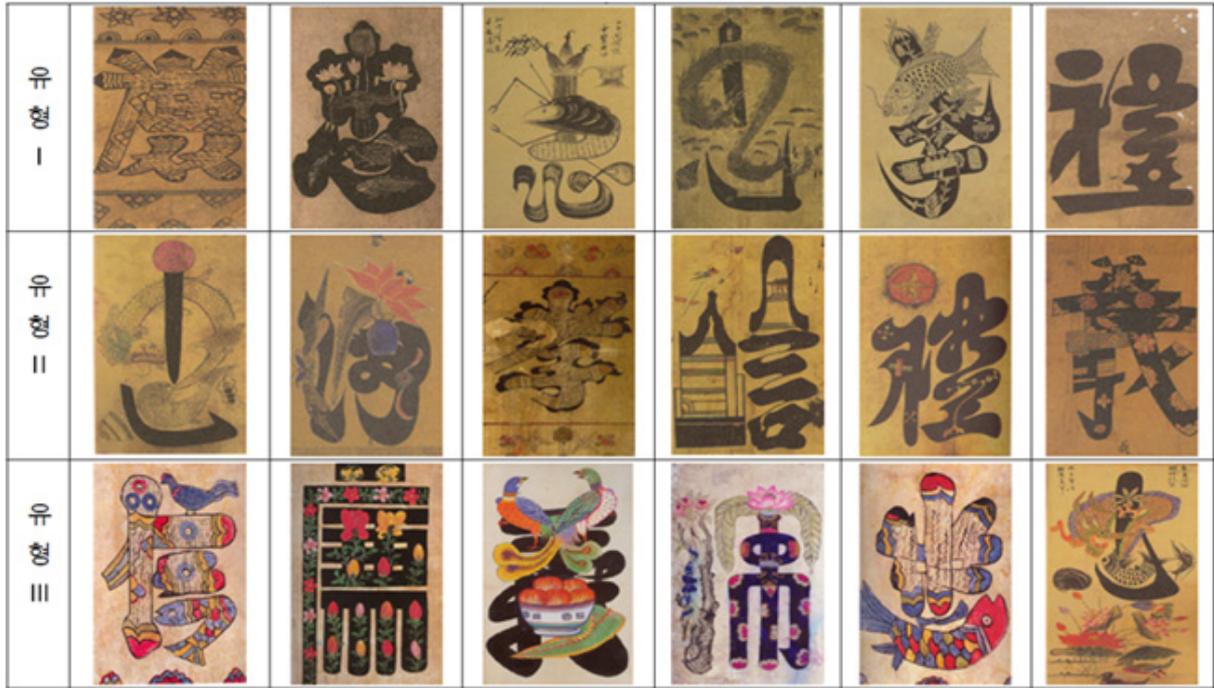
문자	상징성	사용문양	관련 설화
효 (孝)	효도	잉어	왕상빙리 : 진나라(B.C771-221)때 왕상이라는 사람이 계모를 위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공양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죽순	맹종읍죽 : 오나라 맹종이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밭으로 달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니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죽순이 자라나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거문고	대순탈금 : 순(舜)임금은 부모를 위해 거문고를 탄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부채	횡향침선 : 횡향이 부모를 위해 부채를 부쳐드리며 효를 행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굴	육적화굴 : 육적이 원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굴을 대접받았으나 돌아갈 때 옷에서 굴이 떨어져 까닭을 물으니 모친을 생각하여 먹지 않고 옷에 품고 있었다 해서 원술이 육적의 효성에 감동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제 (悌)	형제간 우정· 우애· 협동심	척령 할미새한쌍	<시경>의 시구에서 할미새 두 마리가 먹이를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는데 형제의 어려움을 할미새가 바쁘게 움직이듯 급히 구한다는 의미가 있음.
		복숭아꽃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꽃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를 맹세했다는 것에서 유래함.
		산앵두 나무꽃	상체지화 : <시경> 소아의 상체편에 접동새, 집비둘기 한쌍과 상체라고 하는 산앵두나무를 소재로 함.
충 (忠)	충성· 충절· 절개	웅, 잉어, 새우, 조개, 대나무	한나라 영왕왕이 초나라 항우에게 포위당했을 때 기신이라는 신하가 초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왕을 구해냈음. 하나라의 걸왕이 놀기만 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자 이것을 타이르다 죽은 관룡방이라는 충신의 이야기에서 유래함.
신 (信)	언약· 믿음	흰기러기	편지를 문 흰기러기는 한나라의 소무가 흉노에게 억류되었을 때 그 사실을 조정에 알린 새로 알려져 있음.
		청조	사람 얼굴을 한 청조라는 새는 중국 신화 속 인물인 서왕모가 방문하려는 곳에 항상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알려져 있음.
예 (禮)	예절	책을 등에 진 거북이	중국의 전설 속의 제왕인 복희가 주역의 8괘를 만들 때 기초가 된 그림과 우왕이 떨어지는 물에서 나온 거북에서 얻은 글로써 천하 다스리는 법으로 홍범구주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연유함.
		매화	임금과 신하의 충절, 임에 향한 여인의 절조(지조와 절개)를 상징함.
의 (義)	부부간의 의· 의리	물수리	<시경>의 시구에서 연유하는 물수리(부부간의 의상징)로 알려져 있음.
		복숭아꽃	도원결의 :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인 도원결의에서 유래함.
		연꽃	진흙탕속에서도 연꽃이 환하게 피어오르듯 어떠한 시련에도 의리를 잃지 않고 행한다는 뜻에서 유래함.
염 (廉)	청렴· 정직· 검소함	봉황	번잡하게 무리를 지어 살지 않으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 따위는 먹지 않는 새로 알려져 있음.
		게	나아갈 때나 물러날 때나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치 (恥)	자기 반성	달에서 토끼가 방아찢는모습,매 화나무,百世清風 夷薺之碑가 적힌 충절비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토벌하자 주나라의 음식먹기를 수척스럽게 여긴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으며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고사에서 연유함.

[표 1] 효제문자도 문자의 문양 및 상징성

(출처:윤열수, 2010, pp.44-45; 이명구, 2005, pp.56-57)

사용한 유형 II, 적, 청, 황색을 근거로 화려한 유색을 다양하게 배색한 유형 III이 있다. 이 중에서 적, 청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한 유형 II와 다양한 유색을 배색한 유형 III이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유형 I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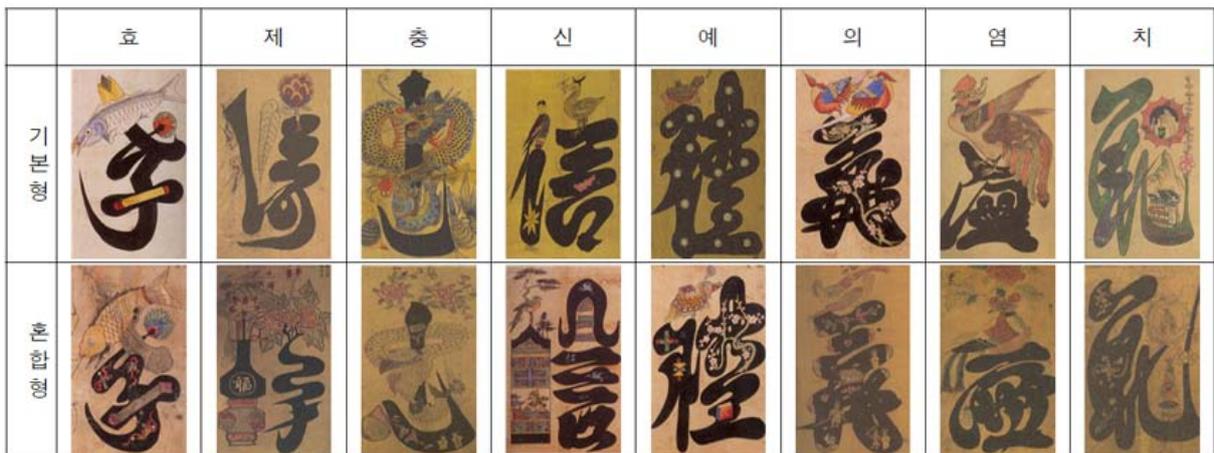
그리고 색상을 사용함에 있어 또 주목할 점은 색상 자체보다 색상간의 조화관계이다. 우리의 전통색상인 적, 청, 황, 흑, 백색의 오방색에서 색상간의 조화로운 관계배색을 상생배색이라 하고 조화롭지 못한 배색을 상극배색이라 한다. 오방색의 상생과 상극 중



[그림 1] 효제문자도의 색상에 나타난 특성
 (출처: 이명구, 2005, pp.45-244;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117; 윤열수, 2000, pp.336-411; 부산박물관편, 2007, p.114)



[그림 2] 상생관계 유색배색의 예
 (출처: 이명구, 2005, pp.189-239; 윤열수, 2000, p.351)



[그림 3] 문자별 사용된 문양
 (출처 : 이명구, 2005, pp.96-242; 윤열수2000, pp.341-351)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문자								
문자 내								
문자 외								
문자 내+외								
문자 + 문자 내								

[그림 4] 문자별 문양의 배치구도

(출처:이명구, 2005, pp.56-245;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115; 윤열수, 2000, pp.342-375; 부산박물관편, 2007, pp.98-108)

흑색과 백색의 무채색을 제외하고 유채색만의 배합을 정리하여 상생은 청색과 적색의 조화와 적색과 황색의 조화이고 상극은 청색과 황색의 부조화이며 또한 우리나라 전통회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채구성은 청과 적의 배색이라 했다(정병모, 2009).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흑색으로 표현된 문자를 제외하고 문양간의 색채배합에서는 색채간의 조화로운 배색인 상생관계 청과 적, 적과 황의 배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그림 2].

3.2. 문양

효제문자도는 효제충신예의염치라는 문자문양을 직접 사용하여 문자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즉 모든 문자에는 유교덕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여기에 각 문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을 함께 그렸다. 즉 일반적인 효제문자도에서 '효'자에는 잉어, 죽순, 거문고, 부채, 굴 문양을, '제'자에는 할미새, 복숭아꽃, 산앵두나무꽃 문양을, '충'자에는 용, 잉어, 새

	1단		2단		3단		4단	
기 예								
예 기								

[그림 5] 효제문자도의 구성양식

(출처: 이명구, 2005, pp.104-243;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p.112-146; 윤열수, 2000, pp.346-368)

우, 조개, 대나무 문양을, '신'자에는 흰기러기, 청조 문양을, '예'자에는 책 등 예의 상징물인 거북이, 매화문양을, '의'자에는 물수리, 복숭아꽃, 연꽃문양을, '염'자에는 봉황, 계문양을, '치'자에는 달에서 방아 찧는 토끼, 충절비, 매화나무문양 등을 각각 사용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자에서 동물문과 식물문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관련설화에 식물문양이 없는 신자와 염자에도 식물문양이 함께 사용된 예가 많았다. 그 외에도 효제충신예의염치 글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의 기타 문자문, 기하문, 보문, 자연문 등이 함께 사용된 예도 많았다.

효제충신예의염치의 문자를 주문양으로 배치하고 각 문자별 관련설화에 나타난 문양을 2차적으로 사용한 기본형과 그 외 기하문, 보문, 자연문 등도 함께 사용한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그림 3]과 같으며 이 중에서는 혼합형의 예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조선초기에는 효제문자도가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강조하며 대규모 국민 홍보용 포스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18세기 중엽이후에는 유교적 교화적 단계를 넘어 도교적 기복적 원초적 상징물과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칠보, 팔보, 태극, 책가도, 화병 등의 문양과 함께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형의 경우는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명구, 2005).

효제문자도의 문양 배치구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의 자획

중 일부를 문양으로 표현하여 마무리한 예, 문자내부에 문양을 배치한 예, 문양을 문자외부에 배치한 예, 문양을 문자내·외부에 모두 배치한 예, 문자의 자획 중 일부를 문양으로 표현하면서 문자내부에도 문양을 배치한 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배치구도는 효제충신예의염치의 모든 문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그림 4]. 효제문자도에서 문자 자획의 일부를 문양으로 표현한 예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유교덕목과 관련된 설화에 등장하는 문양을 강조하며 특히 돋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문양을 문자내부에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자내부에 바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른 문양을 가득 채운 충진구도와 드문드문 한 두 개 정도의 문양을 배치한 산점구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문양의 일종인 문자내부에 또 다른 문양을 배치하는 구도는 유교 덕목인 문자를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교의 덕목을 중시하여 교화를 목적으로 효제문자도가 정형의 틀을 형성하던 시기인 18세기 이전의 유물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문자를 문자외부에 배치하는 구도는 주로 제주도의 효제문자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지역의 문자도는 육지의 문자도와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3-4단으로 일정하게 배분하여 문자의 아래 위에 문자를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문양 또한 육지의 정형화된 문자도에서 볼 수 없는



[그림 6]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서체양식
(출처:이명구, 2005, pp.63-245; 윤열수, 2000, p.336; 부산박물관편2007, pp.96-114)

물고기, 사당, 소반 등의 문양이며 유교의 덕목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 제주지역에서 특히 발달한 무속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3. 구성

효제문자도에서는 1단, 2단, 3단, 4단 구성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단과 3단 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2단 및 3단 구성에서는 분명하게 2, 3단으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그림 5]. 그리고 전형적으로 구분되는 2, 3, 4단 구성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3.4. 서체

효제문자도는 유교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孝, 悌, 忠, 信, 禮, 義, 廉, 恥의 여덟 글자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개한 것이다. 문자도에 담긴 교훈만큼이나 다양한 서체로 표현했는데 비백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등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그림 6]. 비백서체는 글씨가 마치 비로 쓴 것처럼 붓끝이 갈라져서 썩어져 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체이며, 예서체는 직선의 기호로 예술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개성 있는 붓글씨체이다. 해서체는 모범적인 표준서체로 한자교습의 기본서체이며, 행서체는 해서체보다 흘러 쓴 서체

로 독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서체이다.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비백서체는 전형적인 비백서체와 변형된 비백서체 두 종류가 있는데 전형적인 비백서체는 큰 붓을 사용하여 붓끝이 갈라지도록 마치 빗자루로 쓸고 지나간 것 같은 형태로 썩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변형된 비백서체는 제주도 문자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한 번에 글씨를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먼저 쓴 후 문자 내부를 가는 점선으로 가득 채운 듯이 표현한 것이다.

3.5. 표현기법

효제문자도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문자도에서 많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비백기법, 새머리모양기법, 휘기법 등이 그것이다. 비백기법은 비백서체를 모방하여 문자내부를 얇은 점선으로 그려 표현했으며 정확히 새까맣게 썩어지지 않고 마치 비로 쓴 것처럼 붓끝이 갈라진 느낌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두 제주 문자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새머리모양기법은 문자 자획 끝을 눈과 부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새머리모양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습속인 조류숭배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류숭배사상은 죽은 자의 영혼을 타계로 운반하는 수단이 조류라고 믿어 조류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사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숭배사상과도 상통되는데 새는 태양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여 日中三足鳥 즉 태양과 조

미묘 표현기법				새머리모양 표현기법			
휘 표현기법				곡선 표현기법			
문양의 문자내부 표현기법				문양의 문자자획 표현기법			
도식적 표현기법				사실적 표현기법			

[그림 7]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표현기법

(출처 : 이명구, 2005, pp.56-247;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p. 113-143; 윤열수, 2000, pp.346-364; 윤열수, 2010, p.41)

류승배사상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만 팔천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제주지역에서는 태양에 세발 까마귀가 존재하며 이를 태양새라고 믿어 숭상한 기록이 있으므로 효제문자도에서 글자 획의 끝부분을 새의 머리모양 즉 새을(乙)자로 표현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휘기법은 문자 자획의 꺾이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본래 휘는 물건을 두르고 감는다는 뜻으로 물결무늬를 말하는데 문자의 꺾이는 부분을 단청의 휘처리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 역시 제주도 문자도에서만 보이는데 제주도의 파도물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문자 가장자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꽃모양의 곡선으로 처리하여 글씨를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한 예, 문자내부를 문양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는 기법으로 처리한 예, 효제충신예의염치의 문자를 설화와 관련된 문양으로 완성하는 기법으로 처리한 예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대적이며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도식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와 산수와 동식물 등을 매우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도식적으로 표현된 문자도의 경우는 교화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그림 7].

3.6. 지역성

조선의 문자도에는 주로 효제충신예의염치의 유교 덕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담기는데 이 그림은 유교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제충신예의염치의 여덟 덕목에 담긴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양이 각 문자의 자획 자체를 대신하거나 자획 안에 장식되어 그 내용과 표현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음. 	
강원도	관동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경기지역 문자도의 여덟 문자 관련 기본 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동팔경도를 연상케 하는 산수화와 혼합하여 표현함. · 주로 화폭을 상하 2단이나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 효제문자도, 화제, 산수화 각각의 별도 공간을 차지하도록 구성함. 	
	관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했으나 점차 무교인 산악승배사상에 근간을 둔 민간신앙이나 토속신앙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주술적 상징성이 돋보이도록 구성함. 즉 전체화면을 먹으로 그린 초서체의 자획에 무교에서 사용된 주술적인 꽃, 식물, 의미파악이 어려운 상징물로 구성함. 	
경상도내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지역과 관서지역의 양식이 공존하여 강원도양식과 구분하기 어려움. · 관서지역의 문자도와 달리 엽자에서 봉황머리방향이 반대인 점이 특징. 	
경상도남서부 · 전라도 · 충청도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덟 문자의 상징물이나 상징적인 요소들과 함께 다수의 물고기, 꽃, 새가 어우러져 구성된 점이 특징. · 정형의 효제문자도 여덟 문자의 상징물들을 남도지역 민화풍에 담아 해학과 자유분방한 양식으로 발전시켜 남도 지방의 정감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극세화 양식이 특징.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함. 즉 3단구성이 일반적, 휘, 비백기법, 제주를 상징하는 물고기, 새, 무속신앙을 상징하는 사당 등이 문자와 함께 그려진 점이 특징. 	

[그림 8]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출처 : 이명구, 2005, pp.56-222;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p. 121; 윤열수, 2000, p.352)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제주도에까지 전국적으로 성행한 주제로서 각 지역별 양식이 뚜렷하며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부산박물관편, 2007).

3.7. 미적특성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자연미, 세련미, 사실미, 추상미, 조화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제문자도에서는 자연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서체, 해서체, 비백서체와 같은 예스러운 고전서체

에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수를 문자와 함께 표현해 자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특히 제주도의 효제문자도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어 자연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자연미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주도 효제문자도는 화폭을 3, 4단으로 구분하여 맑고 투명한 단색주조의 담채기법으로 표현한 점, 선묘나 점묘법으로 표현한 점, 그리고 동물, 그릇, 나무 등의 그림이 도안화되어 표현됨으로써 문자자체가 갖는 아름다움과 문구가 갖는 뜻을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한 점에서 세련미를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문자의 자획 중 일부를 문양으로 표현하거나 문자내외부에 문양을 배치하여 문양과 함께 문자가 강조되도록 배치한 점에서도 세련미가 돋보인다.

세 번째로, 문자도의 문자를 직설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매우 사실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자와 함께 표현된 고사, 일화, 이와 관련된 도구를 직접 문양으로 표현한 점, 각 글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을 사실 그대로 문양화 시켜 표현한 점, 그리고 산수와 동식물을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통해서 사실미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각각의 고사, 일화, 관련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상징성을 강조했으며 문자도의 색채배색에서도 음양이론에 근거를 둔 상생관계배색을 많이 사용한 점에서 추상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문자도에서 무속신앙을 상징하는 사당, 소반 등의 문양을 표현한 점, 3,4단 구성방식으로 문자자체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한 점, 관서지역의 문자도에서 전채화면을 먹으로 그린 초서체의 자획에 무교에서 사용된 주술적인 꽃, 식물, 의미과약이 어려운 상징물로 구성된 점 등에서도 추상미를 발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자도에서 자연미와 세련미, 사실미와 추상미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며 곡선과 직선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자도에는 동물문과 식물문이 함께 조화롭게 사용되었으며 색채간의 조화로운 배색인 상생관계의 배색이 많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조화미가 돋보인다.

4. 결론

효제문자도 문화원형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고자 본 논문은 선행연구로 효제문자도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직접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색상, 문양, 구성, 서체, 표현기법, 지역성, 미적특성과 같은 조형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효제문자도는 유교의 도덕 강령이며 선비들의 덕목지침이기도 한 효, 제, 충, 신, 예, 의, 엄, 치 즉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우애, 나라에 대한 충성, 서로에 대한 믿음,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것 등 유교적 윤리관을 압축시킨 여덟 글자를 한 글자씩 나누어 각 쪽에 관련설화에 나오는 상징물과 함께 8쪽의 병풍으로 파노라마식으로 꾸민 것이다.

2. 효제문자도에 표현된 색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묵화 느낌으로 유색을 전

혀 사용하지 않고 흑색만을 사용하여 음영효과를 통해 표현한 유형, 문자에는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을 사용하고 적색이나 청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한 유형, 적, 청, 황색을 근거로 화려한 유색을 다양하게 배색한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적, 청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한 유형과 다양한 유색을 배색한 유형이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유형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대부분 흑색으로 표현된 문자를 제외하고 문양간의 색채배합에서는 색채간의 조화로운 배색인 상생관계 청과 적, 적과 황의 배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3. 효제문자도 민화는 효제충신예의엄치라는 문자 문양을 직접 사용하여 문자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즉 문자 한자 한자에는 유교덕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으며 여기에 각 문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을 함께 그렸다. 즉 일반적인 효제문자도에서 '효'자에는 잉어, 죽순, 거문고, 부채, 굴 문양을, '제'자에는 할미새, 복숭아꽃, 산앵두나무꽃 문양을, '충'자에는 용, 잉어, 새우, 조개, 대나무 문양을, '신'자에는 흰기러기, 청조 문양을, '예'자에는 책을 등에 진 거북이, 매화문양을, '의'자에는 물수리, 복숭아꽃, 연꽃문양을, '엄'자에는 봉황, 게문양을, '치'자에는 달에서 방아 찧는 토끼, 충절비, 매화나무문양 등을 각각 사용했다.

대부분의 문자에서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관련설화에 식물문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신자와 엄자에도 식물문양이 함께 사용된 예가 많았다. 그 외에도 효제충신예의엄치 글자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문양의 기타 문자문, 기하문, 보문, 자연문 등이 함께 사용된 예도 많았다.

4. 효제문자도 민화에서는 1단, 2단, 3단, 4단 구성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단과 3단 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2단과 3단 구성에서는 전형적으로 2, 3단으로 구분하는 기본구성 형태와 변형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구분되는 2, 3, 4단의 구성양식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5. 문자도에 담긴 교훈만큼이나 다양한 서체로 표현했는데 비백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등의 형태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문자도에서는 비백기법, 새머리모양기법, 휘기법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 문자내 문양을 배치하거나 문자 자획을 문양으로 표현하는 법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있다.

6. 효제문자도의 미적특징은 자연미, 세련미, 사실미, 추상미, 조화미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미는 예스러운 서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각 문자의 상징물

에 해당하는 문양을 있는 그대로 문양화 한 점, 특히 제주의 문자도는 제주의 자연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어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다. 자연미와 달리 세련미는 문자내외부에 문양을 강조하는 듯 세련되게 배치한 점. 그리고 제주도 문자도의 3, 4단 구성법, 담채기법, 선묘 및 점묘법, 도식적 표현기법 등에서 느낄 수 있다. 사실미는 문자도의 문자를 직설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 산수와 동식물을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추상미는 음양이론에 근거를 둔 상생관계배색을 많이 사용한 점, 제주 및 관서지방의 문자도에 무속신앙을 표현한 점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미적특징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데 하나의 문자도에서 자연미와 세련미, 사실미와 추상미를 함께 연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화 효제문자도의 조형성을 분석하여 패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효제문자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통문화패션상품의 재현 및 응용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자수, 그림, 염색기법 등을 도입하여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할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현선 (2000). 『한국 민화에 대하여』. 서울 : 역락.
- 동아대학교박물관(편) (2010). 『민화와 만나다』. 서울 : 예맥.
- 민화대전집 (2002). 『민화대전집 6』. 대전 : 한일.
- 부산박물관(편) (2007).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부산 : 민족문화.
- 윤열수 (2000). 『KOREAN ART BOOK 민화 I』. 서울 : 예경.
- 윤열수 (2010). 『꿈꾸는 우리 민화』. 경기 : 보림.
- 이명구 (2005). 『동양의 타이포그래피 문자도』. 서울 : Leedia.
- 임현주, 조효숙 (2010). 조선시대 배자류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복식』, 60(3), 56-65.
- 전은자 (2010).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탐라문화』, 36, 223-257.
- 정병모 (2009). 민화에 나타난 색채의 원리와 실제. 『한국민화 몽골이 붉은 영웅 한국민화를 만나다』. 서울 : 가회박물관.
- 정은진 (1994). 「민화의 조형적 재구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포스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효숙, 임현주 (2010). 전통복식 문화원형 콘텐츠의 디지털 활용현황과 제언. 『복식』, 60(6), 89-100.
- 한보환 (1995). 「민화를 소재로 한 한국 이미지 포스터에 대한 연구-현대적 현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